Korean Catholic Church Sunday Bulletin **주님 승천 대축일** 2021년5월16일(제1993호)

정혜엘리사벳

ST.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원현.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상돈.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김귀태.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고원석.바오로 916-813-4440

ST.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1:1-11	제2독서	에페소서 1:17-23	복음	마르코 16:15-20

◉말씀 < 하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

주님 승천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부활 제6주간 목요일에 해당됩니다. 과거 제가 파견되었던 프랑스에서는 이날이 공휴일이고, 그래서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를 본래 날짜인 목요일에 거행합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주일까지 4일간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활 제7주일로 옮겨서 거행합니다. 아마도 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서 더 많은 교우들이 전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가 봅니다. 하늘은 땅 위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 참 높고도 먼 곳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늘은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상주에서도 볼 수 있고, 과거 제가 있었던 프랑스에서도 같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힘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피부색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나 머리만 들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과거든 현재든,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든지 접할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시간과 공관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좋은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일을 잊어서 못 했을 때, '바빠서 못 했다.", '시간이 없었다' 라는 말을 저 자신도 가끔 합니다. 바쁘긴 빠쁜 것 같은데 그리 별다른 새로운 일없이 일상생활 안에서 반복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쁘다는 일상을 가만히 보면 적지 않은 경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삶의 우산 순위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넓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게 되고, 또 우리 이웃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여유도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16,15)고 하셨습니다. 바빠서 하늘을 제대로 못 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들, 성모님의 계절인 5월에 생기넘치는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한숨을 쉬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하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선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자들은 떠나 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마르16,20)

일 자	전 례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5월18일(화)	부활 제7주간 화요일	저녁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650.00 $ 860.00
5월19일(수)	부활 제7주간 수요일	아침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95.00 $ 145.00
5월20일(목)	부활 제7주간 목요일	저녁7시30분	성 물 방 기타수입	$ 133.00 $ 0.00
5월21일(금)	부활 제7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5월22일(토)	부활 제7주간 토요일	저녁7시30분 (특전)	합 계	$ 3,983.00
5월23일(일)	성령 강림 대축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학생: 3명 성인:100명
교무금 봉헌자	김종순(5-9월)권영길.김채홍.이승렬(5-6월)주문엽.김현지(4-6월)최중구(3-5월)박종윤(3-4월)김영숙.성영진.김평옥.김규대.조영숙(5월)			

◉신앙생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21:5)

육신의 부활이란 무었인가요?

Q: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란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건가요?

A: 우선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으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혼만 부활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초세기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악의 원천이며 죄로 가득한 덩어리로 보면서 육신은 부활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가짜 육신을 취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활을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맞서 우리의 부활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전인적인 부활, 육신까지 포함한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활은 현재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육체가 단순하게 재생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997항을 보면 "육신과 영혼의 분리인 죽음으로 사람의 육신은 썩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만나, 영광스럽게 된 그 육신과 다시 결합되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에 결합시키심으로써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육신에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선물로 내어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무관한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요한 5,29)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기은희.마리아/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남필례마리아
신상철.사무엘/이호순.수산나/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여길선 요안나 영혼	김근수요한가족	생		
연	김일준 영혼	김도철베드로	생		
연	전기례 베레나 영혼	조영진안드레아	생		

간장종지

◉ 갈릴래아여 ◉

즈블룬 납달리 호수로 가는 도시들
저 티베리아 가파르나움 막달라 베싸이다, 예수님 발길 곳곳에
핀처럼 찍혀 있는 갈릴애아 도시들이여
갓 서른 청목(靑木)같은 젊음을 불꽃처럼 태우며 일천 날을
걷고 걸으시던 그 마을, 골짜기, 들녘, 갈릴래아 호수
1997년 어느 봄날, 나는 그 호수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보았으니, 십자가 지고 한덩어리 불꽃으로 타오르는 불숭어리를 홍윤숙.데레사 시인

◉공동체 소식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21:5)

1구역(FE).2구역(FO).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며 신앙과 순종의 삶을 본받도록 노력합시다.

1.성모성월 묵주기도 안내 (모든 미사 30분전 성당)
주관:레지오 쁘레시디움 및 단체 (게시판 참조)

2.소토주교님 본당방문 일정변경
일시:6월20일(일) 오전11시.교중미사
목적:본당 신부님 부임미사 및 견진성사 집전

3.견진성사 안내
견진일시:6월20일(일)오전11시.교중미사중
신청대상:세례받은지 3년이상, 16세이상
제출서류:신청서(사무실비치) 및 세례증명서
견진신청자는 대부모를 지정하셔야 하며, 세례명도 변경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견진교육 안내
일시:교중미사후.구사제관(성가대방)

5.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16일(일)오후2시경 출발
참가자:신부님,부제님,사목회장 등 회장단

6.성모의 밤 행사안내
일시:26일(수)저녁7시30분.성당(성모상앞)
준비물:(개인)묵주.초
(구역/단체)꽃.화분.쌀
꽃은 가급적 화분으로 해 주시면 성당 조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사회복지부(사랑의쌀 50포)

7.St.Mary's 천주교묘소 안장예절 신청접수
일시:30일(일)교중미사직후 친교실
담당:St.Mary's 묘소직원 (성당방문접수)
선종하신 가족안장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 신청서류에 서명후 제출바랍니다.

8.교구2차헌금
일시:16일(일)모든미사
목적: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9.2021년판 신자 주소록 확인작업 마감
그동안 협조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소록 광고접수는 20일(목)까지 연장합니다.
광고접수:909-573-5322(사무장)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개설 안내
입금은행:Wells Fargo 예금주: ST.J.H.C
Account No.: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 입니다.

●교구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본당 사목지침
①성모신심미사:6월 첫째주 토요일
②꼬마시움모임:6월 셋째주 일요일
③부제님공소예절:첫째,둘째,넷째 토요일
(추후 일정 재조정)
④주일학교,성가대,복사단모임: 추후공지
⑤모든 단체모임은 본당신부님의 사전승인 필요!!

●교구 방역지침
①미사참석인원과 지켜야할 사항은 기존지침과 동일합니다.
②주일학교, 예비자교리반, 견진교리반, 전례부 복사단, 사목회, 재정위원회는 5월1일부터 허용됩니다.(단,음식나눔은 금지합니다.)
③6월15일 부터는 모든 기도모임, 레지오마리애 사회복지모임 등 모든 모임은 가능하지만 본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음식 나눔은 금지합니다.
④새크라멘토 카운티가 Orange Level로 완화되면 미사참석명단 작성은 중단되고 신자간의 거리두기도 좀 더 가까워집니다.
⑤새크라멘토 카운티가 Yellow Level로 완화되면 성당안에서 거리두기도 없어집니다.

화답송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전례봉사	주님승천대축일(5월16일	성령강림대축일(5월23일	삼위일체대축일(5월30일	성체성혈대축일(6월6일)
미사해설	김선영.플로라	정미정,루시아	오민정.크리스티나	김은영.폴리나
복 사	송돈희.요셉	최진호.다니엘	최준우.루카	김규철.레오
헌금위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 21:5

주보제작: 박봉준.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fax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신세계 여행사
SHINSEGAE TRAVEL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 라 라)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융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융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pm
SACRAMENTO . DUBLIN .LA K-TOWN

Print N Signs

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Suzie Hair World

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

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

성당제출용 CHECK 발행할 때

Payee to:
St.J.H.C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